



이직 끝나지 않았다

한 소년이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쳐보기로 했다. 먼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청했다. 노인은 별 말없이 세 글자를 써 주었다. “不要怕(불요파) : 두려워 마라” “애야, 인생의 비결은 딱 여섯 글자란다. 오늘 세 글자를 알려 주었으니 네 인생의 절반은 이 글자대로 살면 크게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인생의 비결은 여섯 자

30년 후 소년은 청년이 되었다.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마음을 다친 일도 많았다. 다시 고향으로 가 그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의 아들은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며 편지 한 통을 꺼내 주었다. 편지를 뜯어보니 또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不要悔(불요회) : 후회하지 마라” 불요파 불요회는 “미래를 두려워 말고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라”는 뜻이다. 삶은 우리에게 청년 이전에는 두려워 말고 청년 이후에는 후회 말라고 한다.

처음에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모진 결심을 하고 의지 있게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일을 하다보면 난관(難關)에 부딪치게 된다. 사람에게 실망(失望)도 하게 되고 더하여 좀 더 큰 그릇이지 못한 나로 인하여 낙심(落心)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포기(拋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위의 불요파(不要怕) 불요회(不要悔)라는 노인의 글에 하나 더 추가하여 다음의 글자를 쓰고 싶다. “不要棄(불요기) : 포기하지 마라”이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맞서자. 야구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서 톰 헵크스를 연기한 지미 듀건은 이렇게 말했다. “힘들 것이다. 힘들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비로소 위대해진다.” 대부분의 승자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모두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다. 둘째, 그들은 모두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리고 셋째, 아무리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포기

란 없었다. 2015년 11월 세계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제1회 ‘프리미어 12’에서 한국은 개막전에서 일본에 0대 5로 완패했다. 타선은 일본 선발투수 오타니 쇼헤이에게 완벽하게 봉쇄됐고, 몇 번의 찬스 팬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태극 마크 하나로 뭉칠 때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고 한 박찬호의 말처럼, 타이완으로 넘어간 한국은 도미니카와 베네수엘라에 대승을 거둔 뒤 멕시코에 4대 3으로 이기는 등 3연승을 달렸다. 미국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2대 3으로 지긴 했으나 8강 진출엔 이상이 없었다. 8강에서 아마야구의 최강인 쿠바를 만

났지만, 한국 대표팀은 쿠바를 7대 2로 가볍게 이기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한다. 이제 상대는 개막전에서 골육을 안겨준 일본이다. 일본은 개막전에 이어 다시 오타니 카드를 꺼내며 한국에 맞섰다. 도쿄돔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준결승전은 개막전의 재판(再版)이었다. 8회까진 그랬다. 한국은 8회까지 일본에 0대 3으로 뒤졌다. 타선은 개막전에 이어 준결승전에서도 오타니의 호투에 막혀 7회까지 득점은 고사하고, 변변한 찬스도 잡지 못했다. 8회에도 두 번째 투수 노리모토 다카히토에게 삼자범타로 봉쇄당한 한국은 패배가 유력해 보였다.

포기하지 마라

그런데 9회에서 한국야구사에 영원히 기억될 대역전극이 펼쳐진다. 9회 대타로 나온 오재원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한국은 대타 손아섭의 중전 안타와 정근우의 2루타로 첫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이용규의 사구 출루와 김현수의 밀어내기 불넷으로 1점 차로 따라붙은 한국은 이대호의 2타점 적시타로 4대 3 대역전에 성공했다. 대역전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여세를 몰아 결승에서 역시 예선전에서 패한 적이 있는 ‘야구 종주국’ 미국을 8대 0으로 가볍게 꺾고 대망의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스포츠 경기, 특히 야구는 경기가 끝나야 안다는 말이 있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라. 불요파(不要怕) 불요회(不要悔) 불요기(不要棄)하라.*

외국인을 영어와 입어로 전도합시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Where did human beings come from?
人はどこから来ましたか?

● 우리는 누구나 부모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We can't deny the fact that everybody came from their parents.

私たちは誰でも両親から来たという事を否定出来ません。

● 부모님은 조부모님으로부터 왔으며, 조부모님은 증조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One's parents came from their grandparents, and their grandparents, their great grandparents.

ご両親は祖父母様から来たし、祖父母様は曾祖父母様から来ました。

● 이렇게 계속해서 거슬러올라가면 인류의 첫 조상이 나옵니다.

If we go back to the past like this, we reach the first ancestor of all humans.

このように引き続いて上かゆれば人類の初めての先祖が出てきます。

● 성경은 그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하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calls them Adam and Eve, it records that they were Gods before eating the Forbidden Fruit.

聖書は彼らをアダムとイブだとしながら、アダムとイブが「善悪を知る木の実」を取って食べる前には神様だったと記しています。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Therefore we can see that human beings came from God.

したがって人は神様からきたのです。

인류는 한 형제,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속담 속의 영생학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혼을 내리는데 웃고 있으면 혼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웃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 결과를 낳는다는 뜻을 포함한다. 하지만 진짜 웃음 속의 비밀은 웃음은 영생의 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웃는 마음은 영생의 피가 작용함으로써 생긴다. 웃으면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 몸에서 기쁨의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또한 웃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피가 초초로 하나님의 피로 변해서 하나님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언론에서는 최근 10여 년전쯤부터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고 외치지만 승리제단의 이진자 구세주님은 36년 전부터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해 오셨다. “웃는 여러분의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워요. 하나님이나 웃는 거지, 항상 짜증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항상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고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웃으면 바로 엔돌핀이 방출되어서 옆 사람도 전염되어 자동적으로

웃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사세요. 세상 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죠. 이 말은 본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에요!”, 영육일체를 논하시는 승리제단의 구세주께서는 인류는 한 피요 한 몸이라고 하신다. 나뭇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지만 한 나무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뻗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한 조상의 피로 이어져서 내려온 고로 다 한 피를 이어받은 한 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한 몸처럼 여기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의 기초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세상은 한 사람이 웃으면 전체가 웃는 세상이다. 나는 웃고 너는 우는 각자의 세상이 아닌 내가 웃으면 너도 웃는 하나의 세상이다. 그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닌 웃으면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승리제단!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승리제단에서 영원무궁토록 웃을 영생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표준어 제대로 쓰기③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용법들을 총망라하여 그 중에서 특히나 독자들께서 헷갈린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발췌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1. 두음법칙**
 - ① ‘년’과 ‘연’

예) 일 년 열두 달, 십 년을 하루 같이 / 임진왜란이 몇 연도에 일어났나요? 그들은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 ② ‘불’과 ‘울’

예) 백분율(O) 백분률(X) / 합격률(O) 합격율(X)
- 2. 조사**
 - ‘-(으)로서’와 ‘-(으)로써’

예) 공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 선생님은 매로써 학생들을 다스린다.
- 3. 모음조화**

우리말은 대개 모음조화 현상을 지키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

예) 괴로워(O) 괴로와(X) / 가까워(O) 가까와(X) / 반가워(O) 반가와(X) 등

- 4. 사이시옷**
 - 예) 전셋집, 햇수, 곳간, 셋방, 숫자, 찻간, 뒷간, 횡수, 치과, 초점, 대가(대가를 치른다), 이점(그것을 하면 이점이 무엇인가?)
- 5. 어미**
 - ① ‘-든지’와 ‘-던지’

예) 사과든지 배든지 마음대로 골라라. / 얼마나 놀랐던지 가슴이 편다.
 - ② ‘-하노라고’와 ‘-하느라고’

예) 나는 하노라고 했지만 잘 되지 않네요. / 나무를 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이승우 기자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어진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치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신의 실체를 밝혔다

김상욱 역

해인

하느님 (신)

종말 인류의 미래

부자와 천국

장생 천국한 삶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 지구에 종말이 올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점찰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